KIA 김현수 "작년 키움전처럼 던질 것"

지난해 키움전 선발 5이닝 무실점 '첫 승'
올해 5선발 후보 5명 중 1인으로 선발경쟁
'절친' NC 송명기 우승 결정적 기여에 자극

"작년 키움전 처럼 던지겠다".

KIA 타이거즈 영건 김현수가 선발옵션이 될 수 있을까? 작년 15경기 1승2패 ERA 7.24에 그쳤지만 선발투수로 가능성을 보였다.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구원으로 나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키움전에 선발투수로 내보내자 5이닝 무실점 쾌투로 첫 승리까지 따냈다. 마지막 KT와의 경기도 5이닝 1실점 투구로 시즌을 끝냈다.

팀은 이런 투구를 원하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선발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선발 후보 5명 가운데 한 명이다. 올해 양현종의 공백으로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각오도 남다르다. 단계별 불펜피칭을 소화하며 착실하게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멘토들의 조언을 받았다. 양현종과 애런 브룩스이다.

양현종은 "선발투수는 오래 던져야 한다. 오래 던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는 기술적인 조언을 했다. 팔이 느리고 다리가 먼저 나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볼에 힘이 실리는 효과를 보았다.

김현수의 자극제는 절친 NC 다이노스의 우완 송명기이다. 장충고 시절 원투펀치로 활약했다. 송명기는 작년 NC에서 대박을 냈다. 8월 말부터 선발로 전환해 8승(시즌 9승)이나 따냈다. NC 정규리그 우승의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를 보던 김현수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비시즌때 송명기와 함께 운동을 했다. 보는 것이 많았다. 우승했다고 많이 바쁘더라. 부럽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된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 운동부터 지지 않으려고 했다. 아픈 곳 없이 잘 준비했다. 나도 송명기 처럼 하면 좋겠다. 팀에게도 나에게도 자신감이 올라올 것이다"라며 웃었다.

김현수는 커브를 뒷받침하는 제 2의 변화구를 다듬고 있다. 그는 "자신있는 구종은 커브이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대신 체인지업, 투심성 스플리터로 뒤를 받쳐줄 것이다. 계속 캐치볼 하며 두 개를 던지고 있다. 작년은 145km까지 나왔는데 스피드 보다는 오래 던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시즌의 목표는 1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는 "목표는 없다. 일단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않다. 보장되어야 생각할 부분이다. 어떤 보직이든 최대한 많이 던지고 싶다. 키움전처럼 던지고 싶다. 무리가 되더라도 몸관리 자신 있다. 3kg 정도 체중을 키웠다. 무조건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민정 기자

변재준(오른쪽)과 김효빈.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아티스틱스위밍 1호' 변재준·김효빈
FINA 주최 월드시리즈서 은메달 획득

국내 아티스틱스위밍 남자선수 1호인 변재준과 학교 후배 김효빈(이상 동광고)이 국제수영연맹(FINA) 주최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선수는 21일 새벽(한국시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FINA 아티스틱스위밍 월드시리즈 1차 대회 혼성 듀엣 테크니컬 종목에서 기술점수 21.1000점, 예술점수 20.5000점, 구성점수 28.9517점으로 합계 70.5517점을 받아 스페인팀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다.

뒤이어 혼자 연기하는 남자 솔로 테크니컬 종목에 나선 변재준은 영국 가수 아델의 'Hello'에 맞춰 구성된 안무를 실수 없이 수행해 기술점수 21.4000점, 예술점수 20.8000점, 구성점수 26.2956점 등 총 68.4956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솔로 우승자 페르난도 디아즈(스페인)에 불과 0.0531점 차로 밀려 금메달을 놓친 변재준은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출전한 4개 대회 연속 입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다.

변재준은 1980년대 인기 가수 변진섭의 아들이다.

변재준은 "코로나19로 수영장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라 충분한 대회 준비를 못 했다. 국가대표가 아닌 클럽 소속으로 출전이 아쉽지만 계속 실력을 다져 다음에는 정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선수로 세계무대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출전한 국가대표 후보선수 김효빈은 "코로나19 와중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자 국제 수영계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회를 진행 중이다. 선수의 실전 감각 유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참가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각자 연기를 펼친 촬영분을 주최 측에 제출하면 국제심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화면 너머 동작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아티스틱스위밍은 흔히 말하는 '수중발레'다. 물속에서 음악에 맞춰 각종 동작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뽐내는 종목으로 2017년까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으로 불렸다.

솔로, 듀엣, 팀 등의 세부 종목으로 여자부 경기만 있었으나 2015년부터 여자와 남자가 2인 1조로 연기하는 혼성듀엣 종목이 신설됐다.

뉴시스

석진욱 OK금융그룹 감독 "송명근·심경섭,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해야"

"경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부분도 조심해야"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은 최근 송명근과 심경섭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송명근과 심경섭은 구단에 시즌 포기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다.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코트에서 사라졌지만 성난 팬심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팬들은 폭력 행사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보다 강한 징계를 구단에 요구하고 있다.

OK금융그룹 석진욱 감독은 21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KB손해보험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송명근과 심경섭에 대해 언급했다.

석 감독은 "두 선수를 집으로 보냈다. 피해자와 만나 계속 미안한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면서 "복귀 가능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구단 별도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구단이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석 감독은 "참 어려운 문제다. 12년 전 일로 우리가 징계를 준다는 게…"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석 감독은 또 "말 한마디가 부담스럽다. 잘못 했을 때 파장도 크다"면서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최대한 (모든 행동들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선발로 돌아온 이강인, 후반 추가 결승골 도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이 주무기인 왼발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21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0~2021 라리가 셀타비고전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달 22일 오사수나전 이후 리그 한 달 만의 선발 출격이었다.

후반 19분에는 수비 라인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침투 패스로 기회를 제공했다.

화들짝 놀란 셀타비고 골키퍼 루벤 블랑코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태클로 저지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상대의 퇴장을 이끌어낸 셈이다.

수적우위에도 발렌시아의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그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이강인의 왼발에서 요동쳤다.

이강인은 후반 추가시간 4분 쇄도하던 마누 바예호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줬다. 골키퍼와 맞선 바예호가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발렌시아가 리드를 잡았다. 이강인은 시즌 4호 도움(1골)을 기록했다.

뉴시스

손흥민, 유로파리그 32강 선수 가치 베스트11…1200억

시즌 18호골 토트넘 4-1 승
도움 13개 공격포인트 31개
11명 중 두번째로 높은 가치
팀 동료 해리 케인, 1609억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에 오른 선수 중 가치가 높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의 축구이적전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20일(한국시간)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32강에 출전하는 선수 중 손흥민을 9000만 유로(약 1206억원) 가치로 평가하며 베스트11에 포함했다.

손흥민은 11명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치로 평가받았다.

손흥민은 지난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베르거(오스트리아)와의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시즌 18호골(EPL 13골·유로파리그 예선포함 4골·리그컵 1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도움 13개와 함께 공격포인트 31개를 기록,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새로 썼다.

팀 동료 해리 케인은 1억2000만 유로(약 1609억원)로 제일 높았다.

손흥민은 브루노 페르난데스(9000만 유로), 마커스 래시포드(8000만 유로·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최전방 공격수 케인 뒤에 배치됐다.

폴 포그바(6500만 유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리 틸레만스(5000만 유로·레스터 시티)가 중원에 자리했고, 포백은 테오 에르난데스(5000만 유로·AC밀란), 파우 토레스(5000만 유로·비야레알), 칼리두 쿨리발리(6000만 유로·나폴리), 아론 완-비사카(4000만 유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구성됐다.

골문은 잔루이지 돈나룸마(6000만 유로·AC밀란)가 지켰다.

뉴시스

류현진, MLB 판타지랭킹 85위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훈련 시설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 스프링캠프 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토론토 블루제이스 트위터)

선발 투수 26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MLB)닷컴 판타지랭킹에서 톱 100위에 진입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MLB닷컴이 공개한 2021시즌 MLB 판타지랭킹에서 85위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 중 100위권 이내에 포함된 이는 류현진 뿐이다. 선발투수로 범위를 좁히면 26위에 해당한다.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 박한 평가다.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샌디에이고 파드리드·전체 29위·선발투수 9위)보다 훨씬 순위가 낮다.

미국 야구 예측 프로그램인 스티머는 류현진이 새 시즌 12승, 평균자책점 4.16, 탈삼진 160개, 이닝당 출루허용률 1.28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통해 빅리그에 뛰어든 김하성은 257위에 랭크됐다. 2루수 중 15위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전체 273위이자 선발투수 중 80위에 자리했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은 전체 534위, 1루수 중 38위다.

새 시즌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추신수의 순위는 전체 482위(외야수 106위)로 책정됐다.

전체 1위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외야수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에게 돌아갔다. 선발 투수 중에서는 게릿 콜(뉴욕 양키스)이 전체 6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